

## 돌궐 의복 형태 연구

양예은 · 채금석<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 전공 박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sup>\*,\*</sup>

### A Study on the Style of Clothing of *Turk*

Ye-Eun Yang · Keum-Seok Chae<sup>\*,\*</sup>

Doctoral Progra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sup>\*,\*</sup>

(2017. 2. 21 접수; 2017. 5. 8 수정; 2017. 5. 10 채택)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study Turkic clothing traditions as a way to shed light on cultural development via the interactions among different tribes along the Silk Road, the close correlations between the surroundings of the Turks and their costumes, and the root of Turkic culture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empirical studi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urks were nomadic equestrian tribes in the north that dominated the cold dry steppes from the 6<sup>th</sup> to 8<sup>th</sup> century A.D., when they expanded their influence to Dongbei, China to the east, and Turkistan (Central Asia) to the west. The Turks formed a nomadic lifestyle and culture suited to a cold dry climate, and interacted with various other tribes via the Silk Road, while exchanging and sharing different cultural aspects. Second, given that the Turkic garments constitute a two-piece style, which is a category of the basic nomadic costume of northern tribes, and that the artifact materials manifest jackets, overcoats, pants and skirts, the garments are categorized into tops and bottoms. The tops are sub-categorized into jackets and overcoats. The bottoms are sub-categorized into pants and skirts. In light of the necklines of tops, jackets have round necklines, while overcoats have V-necklines, round necklines and lapel collars. The bottoms include narrow-legged pants, wide-legged pants and closed-hem pants. Drapery skirts are worn at the waist. Third, the Turkic V-neckline overcoat is comparable to the Huns' silk overcoat, which illustrates the ethnic link between the two tribes. Also, the Turkic narrow- and wide-legged pants are consistent with the Huns' silk pants discovered in Noin Ula. The Turkic costumes are mostly tight fitting, suitable for the nomadic lifestyle in a cold, dry climate. Also, additional patches must be attached to the crotch points of pants due to the equestrian lifestyle.

*Key Words:* Turk(돌궐), Turkic Culture(돌궐 문화), Turkic Costume(돌궐 의복), Nomadic Costume(유목민 의복), Silk Road Costume(실크로드 의복)

---

Corresponding author ; Keum-Seok Chae  
Tel. +82-2-710-9312, Fax. +82-2-710-9312  
E-mail : cks9312@sookmyung.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아시아 내륙을 횡단하는 고대 동서통상로(東西通商路)인 실크로드는 비단무역을 매개했던 중앙아시아의 교통로로써 동·서 문화가 소통되던 통로였다.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 동·서 교류된 문화는 각 지역 민족의 토양과 생활방식에 맞는 방식으로 융합, 변용되어 독특한 자기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켜왔다.

특히 고대 실크로드의 간선통로 중 하나인 초원길을 누비며 동·서 교류의 주역을 담당했던 북방 기마유목민족 중 하나인 돌궐족(突厥族)(정수일, 2013)은 A.D. 6세기부터 8세기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실크로드 주변 지역 민족들을 통합하면서 돌궐제국이라는 세계 대제국을 성립하였다. 돌궐족에 의해 통합된 민족연합체는 돌궐의 고대 한자음이 ‘투키에(Tu-kie)’이기 때문에 투르크족이라 불리며 세계 역사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지금 현존하는 거의 모든 투르크계 민족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돌궐제국에서 찾고 있고(이광호, 1998),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지역은 민족적 동질성으로 인해 흔히 ‘투르크인의 땅’이라는 뜻으로 투르크스탄이라 불리며, 투르크계 문화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투르크족의 뿌리를 이루는 돌궐족의 문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돌궐의 역사적, 지리·자연환경적, 인종적 배경을 살펴본 후 문헌·유물자료에 나타난 돌궐 의복의 세부적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세부적 형태와 구조, 그리고 디테일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돌궐의 의복 형태가 다양한 환경요인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는지를 고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선행연구에 있어 실크로드와 그 민족들의 교류에 대한 연구 및 발견된 유물 중심의 연구가 되는 단계에서 본 연구는 돌궐의 의복 형태에 집중해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부족한 고대 아시아 복식 연구에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돌궐의 의복 형태를 다양한 환경요인 간의 상관관계와 함께 주변 민족과의 교류

및 관계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발전과정 측면에서 조망하여 살펴보는 것은 아시아 복식들 간의 친연성 및 원류를 찾아가는 일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어 그 의의가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돌궐족에 대한 이론 및 의복을 고찰하는 데 있어 돌궐족이 동·서로 세력을 확장하여 대유목제국을 형성했던 A.D. 6세기부터 후기 돌궐제국이 위구르에게 멸망한 A.D 8세기까지의 시기로 돌궐 관련 자료를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인류학·고고학·역사학·인문학·사회학 관련 서적과 선행연구논문, 고서기록을 참고하여 돌궐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고, 복식사 관련 서적과 선행연구 논문, 고서기록 등을 바탕으로 하여 돌궐 의복을 연구하였다. 더불어 실증연구로써 암각화 1점에 나타난 인물 2명, 석인상 7점에 나타난 인물 7명, 안가묘 석관상 연회도 4점에 나타난 인물 11명, 아프리카 시암 궁전 벽화 1점에 나타난 인물 30명으로, 총 13점에 나타난 인물 50명을 중심으로 유물 모사도 등과 함께 유물·시각자료를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역사적 배경

돌궐은 우수한 철제무기로 역사상 처음으로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걸쳐 6세기 중엽부터 약 200년간(545~745) 가장 강력한 대유목제국을 건설한 유목기마민족으로, 투르크(Türk)의 음을 따서 한자화한 말이다(정재훈, 2009).

예니세이강과 바이칼호(Baikal) 지방에 살았던 투르크 종족인 철궐(鐵勒)의 한 부족으로서 알타이산맥 방면에서 유연(柔然, 몽골지방의 고대 유목민족)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중 한 씨족인 아사나씨(阿史那氏)의 족장 토문(土門, 이리카간, 伊利可汗)이 552년에 유연을 격파하고 독립하여 돌궐국의 기반을 다져나갔고, 그의 아우인 이스

테미(Istemi, 서면카간, 西面可汗)는 서방으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돌궐의 세력 범위는 동쪽으로는 중국 동베이(東北:만주),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에까지 확장되었다(563~567년).

그러나 동족간의 다툼으로 583년 동서로 분열하여 동돌궐은 몽골고원, 서돌궐은 투르키스탄(중앙아시아)을 각각 지배하였다(정수일, 2013). 동돌궐은 중국 내부의 혼란을 틈타 세력이 강대해졌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630년부터 약 50년간 당에 복속되어 지배를 받았다.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기마유목민족인 서돌궐과 서돌궐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외교의 자문 역할을 맡으며 경제력을 가진 오아시스 통상민인 소그드인과의 공생관계로 인해 서돌궐은 그 위세를 떨쳤으나(스기야마 마사아키, 2013), 당나라의 공격과 철륵 제부족의 독립 등으로 분열 상태에 있다가 657년 멸망하고 당나라의 간접 지배를 받았다(권현주, 2012).

그러나 679년경에 아사나골돌룩(阿史那骨祿)이 당에 반기를 들고, 토벌하여 후기 돌궐제국의 시대를 열었다. 중앙아시아를 원정할 만큼 다시 최고의 융성기를 맞았으나 다시 동족간의 다툼으로 부족 연합이 와해되어 쇠약해졌고, 745년 철륵의 한 부족인 위구르에게 멸망하며 위구르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김소현, 2003).



〈그림 1〉 돌궐제국, 6세기말~7세기 초  
(출처: 유목민 이야기 (p.150) 김종래, 2002, 서울: 푸엔들.)

## 2. 지리·자연환경적 배경

돌궐족은 본래가 철물업에 종사하면서 예니세이강과 바이칼호(Baikal)지방, 즉 알타이산맥 서남부에 거주하던 북방계 유목민족으로 서방으로까지 진출하며 동쪽으로는 중국 동베이(東北:만

주), 서쪽으로는 투르키스탄(중앙아시아), 북쪽으로는 예니세이강 상류까지 세력이 확장되어 대유목제국을 형성하였다(정수일, 2013).

그러나 동족간의 다툼으로 동서로 분열되어 동돌궐제국은 만주의 변경에서 만리장성과 하미 오아시스까지의 몽골고원을 지배했고, 서돌궐제국은 하미에서 아랄해와 페르시아까지 뻗쳐 투르키스탄을 각각 지배했다. 특히 서돌궐제국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속디아나(소그드인 본거지) 지방도 복속시켜 그 세력을 키웠다(김소현, 2003).

이에 동·서돌궐제국은 실크로드의 초원로와 오아시스로의 실권을 장악하였고, 해당 지역은 한랭 건조한 기후를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초원대는 대체로 북위 50~40도 사이에 위치하여, 돌궐과 같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양·산양·소·말·낙타 등의 가축을 관리하고 사육하면서 풀을 찾아 주거(住居)와 가재(家財)를 부단히 옮기며 이동하는 유목(遊牧)생활을 하는 민족들만이 적응할 수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 3. 인종적 배경

‘투르크’는 한적(漢籍)에서 ‘돌궐’로 나오는데, 이처럼 ‘돌궐’은 ‘투르크’의 음사(音寫)로 여겨진다(정재훈, 2009).

돌궐 제국은 아시아 흉노 제국에 이어 초원 지역을 통일한 대제국이기에(이희철, 2007), 동부 시베리아의 야쿠트(Yakut)족과 서쪽의 오우르(불가르)족의 일부를 제외한 내륙아시아의 거의 모든 종족들이 돌궐 제국의 깃발 아래 통합되었다. 유목민족의 부족들은 지배종족의 이름에 따라 그 부족의 종족이 결정(김효정, 2002)되기 때문에 돌궐(突厥, 투르크Turk)에 복속된 종족들은 투르크족이라 하며, 다양한 투르크 부족의 총 연합체는 툴레스(Töles, 철륵, 鐵勒)라 한다. 중국의 『당서(唐書)』에 철륵은 고대 흉노인의 후예들이며, 또 초원 지역에 뿌리를 내린 다양한 투르크족의 총연합체로서, 『수서(隋書)』에 의하면 50여 부족이 이에 속해 있었다고 한다(이희수, 2005). 이처럼 돌궐족의 시원에 관해서는 대체로 흉노의 별종이라든가, 아니면 그 북쪽에 있던 색국(索國)이나 정령(丁零)·선비(鮮卑)의 후예라는

〈표 1〉 돌궐(투르크)의 이론적 배경

	돌궐(Turk, A.D. 545~745)
역사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2년에 유연을 격파하고, 독립하여 몽골 초원의 유목부락들을 장악함으로써 돌궐국 건설</li> <li>· 583년, 동족간의 다툼으로 동·서돌궐로 분열</li> <li>· 630년 당나라에 동돌궐 복속, 657년 부족 분열로 서돌궐 멸망</li> <li>· 682년 후돌궐 건국→ 동족간의 다툼으로 744년 위구르에 멸망</li> </ul>
지리·자연환경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타이산맥 서남부 지역을 발상지로 동쪽으로는 중국 동베이(東北:만주), 서쪽으로는 투르키스탄(중앙아시아)까지 세력 확장</li> <li>· 한랭건조기후를 특징으로 하는 초원대</li> </ul>
인종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흉노의 후예라는 설 유력</li> <li>· 투르크족: 돌궐 복속 종족 / 튀레스(철륵): 투르크족 연합체</li> </ul>

주장이 우세하지만, 투르키스탄에서 발원했다는 등의 이설들도 존재한다(정수일, 2013). 다양한 투르크 종족들은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시베리아에서 발칸 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퍼져 무수한 군소 국가들을 구성하고 있다.

이상 돌궐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Ⅲ. 문헌·유물에 나타난 돌궐 의복 유형

유목민들은 지역을 이동하며 살아감에 따라 생활함에 있어 매일 필요하지 않은 것은 보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문자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목민들 대부분은 본인들의 역사를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유목민에 대한 시각과 그들의 역사는 대부분 그들과 인접한 문자를 가진 정주 사회(정착민)가 남긴 역사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연구가 쉽지 않다(스기야마 마사아키, 2013). 이에 그들의 의복에 대한 기록과 그림 자료가 남은 것은 거의 없으며, 의복 등 직물로 만든 물품은 쉽게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무덤 등 유적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된 사례도 매우 드물다(김용문, G. 에렉젠, 2008).

북방계 유목기마민족이었던 돌궐은 문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유목민족과 같이 그들의 역사 문자 의존도는 매우 미약(김종래, 2002)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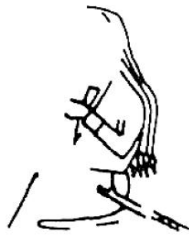
며, 이에 남아있는 관련 자료도 매우 한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자가 있었던 정주 사회 중국이 돌궐에 관해 남긴 몇몇의 고서(古書)기록의 문헌자료와 일부 남아있는 돌궐인 관련 유물 시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돌궐 의복의 세부적 유형을 정리하였다.

#### 1. 문헌-고서(古書)기록

돌궐 의복의 세부적 유형에 대해 알 수 있는 문헌자료로는 고서기록으로 『주서(周書)』, 『북사(北史)』, 『수서(隋書)』 그리고 서돌궐 가간 통엽호(統葉護, Ton Yabghu, 618~630)에 대해 현장(玄奘)이 남긴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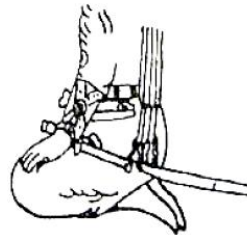
『주서』, 『북사』, 『수서』에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며, 몸에 입는 것은 가죽(革衣)과 털옷(裘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돌궐 의복은 좌임(左衽)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서』의 “황제가 신의공주를 이궐처라가한에게 시집 보내고, 금채포(錦綵袍) 1천구를 내려주었다.”는 기록과 서돌궐 가간 통엽호에 대해 현장이 남긴 기록인 “귀족들은 중국산 금름(錦綾, 무늬가 있는 비단)의 포(袍)를 두르고...”라는 내용을 통해 돌궐은 의복 유형으로 포(袍)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서에는 돌궐 의복 유형에 있어 상의의 유형으로 포를 기록하고 있고, 여밈 방향은 왼쪽으로 여미는 좌임이었다고 되어있다.



〈그림 2〉 돌궐무사1

(출처: 몽골석인상의 복식연구. 김용문, G. 에릭젠, 2008, 한복문화, 11(3), p.197.)



〈그림 3〉 돌궐무사2

(출처: 몽골석인상의 복식연구. 김용문, G. 에릭젠, 2008, 한복문화, 11(3), p.197.)

## 2. 유물

돌궐의 의복 형태에 대해 알 수 있는 유물로는 예니세이(Yenisei) 상류 암각화 1점에 나타난 인물 2명, 돌궐시대 석인상 7점에 나타난 인물 7명, 섬서성 안가묘(安伽墓) 석관상 연회도 4점에 나타난 인물 11명,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 1점에 나타난 인물 30명으로 총 13점에 나타난 인물 50명을 중심으로 모사도 등의 시각자료와 함께 살펴보았다.

상의 형태를 살펴봄에 있어 『석명(釋名)』에서 포에 대한 ‘길이는 발등에 이른다.’는 기록과 저고리는 일반적으로 둔부선 길이 혹은 더 긴 길이(채금석, 2014)로 하여 포보다는 그 길이가 짧으나 무릎 위 길이로 내의(內衣)와 외의(外衣)를 모두 포함한다(채금석, 2012)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발등 혹은 발목 정도 길이의 긴 겹옷은 포로 분류하고, 둔부선 길이 혹은 무릎 위 길이로 내의나 외의로 착용된 상의는 저고리로 구분하고자 하며, 발등 혹은 발목 정도 길이는 아니지만 저고리보다 길게 내려와 무릎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긴 길이의 겹옷은 포에 포함시켰다.

### 1) 암각화

암각화(岩刻畵)란 바위에 새겨진 그림으로 5-7세기로 추정되는 예니세이 상류 암각화에 그려진 돌궐 무사의 모습(김용문, G. 에릭젠, 2008)을 통해 돌궐의 의복 유형을 도출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소실된 부분이 많아 의복 형태는 부분적으로만 확인된다.

돌궐무사1(그림 2)은 둔부(臀部)선 보다도 길이가 긴 상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목선·여

밈 형태는 알 수 없고, 팔에 밀착될 정도로 매우 좁은 소매인 착수(窄袖)의 수구(袖口)에는 가선이 둘러져있다. 허리에는 대(帶)가 둘러져있다. 돌궐무사2(그림 3)는 상의로 둔부선을 지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착의(窄衣)를 착용했고, 상의 유형은 포로 분류할 수 있다. 목선·여밈 형태는 알 수 없지만 허리띠로 여며져있고, 팔에 밀착될 정도로 매우 좁은 소매인 착수의 수구에 화려한 문양이 들어간 가선이 둘러져있다.

이상 암각화를 통해 본 돌궐의 상의 유형은 둔부선을 지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포로써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는 착의이다. 상의의 유형 별 형태에 있어 목선·여밈 형태는 소실되어 알 수 없지만, 팔에 밀착될 정도로 매우 좁은 소매인 착수의 수구에 가선이 둘러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석인상

돌궐시대 석인상에는 당시 돌궐인의 의복 형태가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돌궐의 의복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돌궐시대의 석인상 고인이 죽은 적으로 보는 학자(고마즈 히사오, 2005)도 있지만 남·녀 석인상 모두 발견되고 있고, 손에는 잔을 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석인상은 제사유적의 주인과 그의 부인, 부하 등을 표현하는 것(김용문, G. 에릭젠, 2008)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돌궐시대 석인상 총 7점에서 하나는 돌궐 여성의 석인상이다.

돌궐시대 석인상1(그림 4)과 석인상2(그림 5)는 팔 부분은 소실되어 소매 부분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앉아 있는 자세에서 무릎과 다리를 덮을 정도로 길이가 길면서 목선형태가 젓혀진 것인



〈그림 4〉 석인상1, 6-8C, 몽골고원

(출처: 몽골석인상의 복식연구. 김용문, G. 에렉젠, 2008. 한복문화, 11(3), p.197.)



〈그림 5〉 석인상2, 6-8C, 몽골고원

(출처: 몽골석인상의 복식연구. 김용문, G. 에렉젠, 2008. 한복문화, 11(3), p.197.)



〈그림 6〉 석인상3, 6-8C, 몽골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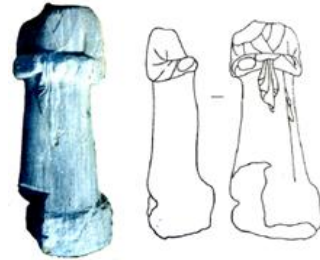
〈그림 7〉 석인상4, 6-8C, 몽골고원



〈그림 8〉 석인상5, 6-8C, 몽골고원



〈그림 9〉 석인상6, 6-8C, 몽골고원



〈그림 10〉 석인상7의 실물사진과 모사도, 6-8C, 몽골고원

(출처: 몽골석인상의 복식연구. 김용문, G. 에렉젠, 2008. 한복문화, 11(3), p.198.)

번령(翻領)의 상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상의 유형으로 번령포(翻領袍)를 도출할 수 있다. 여밈 방향을 보면 석인상1은 오른쪽으로 여밈은 우임(右衽)이고, 석인상2는 왼쪽으로 여밈은 좌임(左衽)이다. 허리에는 대가 둘러져있다.

돌궐시대 석인상3(그림 6)과 석인상4(그림 7)는 석인상1, 2와 같이 앉아 있는 자세에서 무릎과 다리를 덮을 정도로 길이가 길면서 목선형태가 젓혀진 것인 번령의 상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상의 유형으로 번령포를 도출할 수 있다. 여밈 방향은 모두 좌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허리에는 대가 있으나 옷깃이 젓혀지기 시작하는 위치가 대부터가 아닌 가슴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대와 함께 다른 여밈 수단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비록 석인상3, 4 모두 잔을 들고 있는 손에 가려져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옷고름이 달려 있기에는 옷고름 모양이 보이지 않으므로 단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좁은 소매 형태인 착수로 나타나고 있고, 둘 다 소매 수

구에서 가선이 보이는데, 특히 석인상4의 수구에는 가선이 길게 둘러져 있는 특징을 보인다.

돌궐시대 석인상5(그림8)와 석인상6(그림 9)은 서있는 돌궐시대 석인상으로 특징이 무릎 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무릎 위의 모습만 분석할 수 있다. 무릎 끝까지 길게 내려온 길이에 목선형태가 젓혀진 것인 번령의 상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상의 유형으로 번령포를 도출할 수 있다. 여밈 방향은 석인상5는 좌임, 석인상6은 우임이며, 허리에는 대가 둘러져있다. 석인상6의 옷깃이 대부터 젓혀지기 시작하여 대만으로 여밈 것으로 보이나 석인상5는 가슴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대와 함께 다른 여밈 수단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옷고름 모양은 보이지 않으므로 단추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석인상5, 6 모두 좁은 형태의 소매인 착수인데, 석인상6의 수구에서는 가선이 길게 둘러져있다.

석인상7(그림 10)은 돌궐 여성의 석인상으로 돌궐 여성 의복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 발등을



〈그림 11〉 돌궐인1,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1폭



〈그림 12〉 돌궐인2,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1폭



〈그림 13〉 돌궐인3,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4폭



〈그림 14〉 돌궐인4,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4폭



〈그림 15〉 돌궐인5,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4폭



〈그림 16〉 돌궐인6,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5폭

뒀을 정도로 길이가 길면서 목선형태가 젓혀진 것인 변령의 상의를 착용한 것으로 보아 상의 유형으로 여성 역시 변령포를 도출할 수 있다. 여밈 방향은 좌임이고, 허리에는 대가 보이지 않는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있는데 소매통과 모아진 부분의 소매 주름을 보아 좁고 긴소매로 착수형 장수(長袖)임을 알 수 있다.

이상 석인상을 통해 돌궐 의복 형태에 있어 하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상의의 유형은 착의로 무릎선 아래까지는 내려가는 긴 길이에 목선형태가 젓혀진 것인 변령포로 살펴볼 수 있고, 상의의 유형 별 형태에 있어 여밈 방향은 좌·우임 혼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밈 방법은 대 또는 대와 함께 단추를 이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팔에 밀착될 정도로 매우 좁은 소매인 착수의 수구에는 가선이 없거나, 있으며, 둘러진 가선의 길이도 아주 짧은 경우도, 또는 매우 긴 경우도 있어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안가묘 석관상 연회도

중국 섬서성 서안(西安)에서 발굴된 안가묘(安伽墓)는 북주(北周, 556~581)시대 소그드인의 묘로 알려져 있는데(국립중앙박물관, 2010), 묘실 중앙 석관상에 둘러진 12개의 병풍 같은 석판에 수렵도, 연회도 등 다양한 장면이 부조로 묘사(정완서, 2012)되어 당시 인물들의 의복 형태를 볼 수 있다. 연회도 제 1폭에 5명, 제 4폭에 4명, 제 5폭에 1명, 제 6폭에 1명이 돌궐족 사람이라 판단(권현주, 2012)되고 있어, 총 4점 가운데 나타난 돌궐인 인물은 총 11명이다.

돌궐인1(그림 11)의 상의의 유형은 착의로 무릎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긴 길이에 목선형태가 직령의 옷깃이 서로 합쳐져 V-네크라인으로 된 직령합임포(直領合衿袍)로 허리에 대를 두르고 있다. 또한, 돌궐인2(그림 12)와 돌궐인3(그림 13)은 상의 안쪽에 둥근 깃의 단령(團領)으로 된 관두의(貫頭衣)의 저고리를 내의로서 착용하여, 직령합임포를 외의로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옷깃이 서로 합쳐져 앞길이 막혀 있기 때문에 여밈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매통과 손목부분의 소매 주름, 특히 돌궐인1의 왼쪽 소



〈그림 17〉 돌궐인7,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1쪽



〈그림 18〉 돌궐인8,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1쪽



〈그림 19〉 돌궐인9,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1쪽



〈그림 20〉 돌궐인10,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4쪽



〈그림 21〉 돌궐인11, 6C 후반, 안가묘 석관상  
제 6쪽

매 형태를 보아 좁고 긴 착수형 장수임을 알 수 있다. 돌궐인2, 3은 수구에 가선이 둘러져있고, 돌궐인1은 상의에 옷깃부터 이어져 앞 중심선을 따라 가선이 둘러져있다. 돌궐인1은 하의로 바지를 목이 긴 신 화(靴)에 구겨 넣어 착용하고 있는데, 바지에서 다리가 접힌 부분에 주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 바지통이 여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 바지통이 좁지 않아 착고(窄袴)라 할 수 없으며, 바지부리가 넓고 개방된 대구고(大口袴)나 바지부리를 오므린 궁고(窮袴)를 화에 구겨 넣어 착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돌궐인4(그림 14), 5(그림 15), 6(그림 16)의 상의의 유형은 착의로 무릎선 아래까지는 내려가는 긴 길이에 목선형태가 둥근 것의 단령포(團領袍)로 살펴볼 수 있다. 돌궐인4와 5의 앞에는 선이 그려져 있어 앞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고, 돌궐인6의 앞에는 비록 선이 그려져 있지 않지만, 다리 사이에 포가 나뉘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또한 앞이 열려 있는 것이며, 앞에 선이 있었으나 부분적으로 윤곽선이 흐려져 선이 사라진 것으로 짐작된다. 돌궐인4와 5는 왼쪽으로 여몄으며, 세 인물 모두 허리에 대는 있으나 목선

까지 여며져 있으면서 옷고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대와 함께 단추로 여몄음을 알 수 있다. 모두 소매통과 손목부분의 소매 주름을 보아 좁고 긴 소매로 착수형 장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돌궐인4는 목선에만 가선이 있고, 돌궐인5는 옷깃, 도련, 수구까지 가선이 있으며, 돌궐인6은 옷깃에만 가선이 있다. 돌궐인4, 5는 하의로 바지를 목이 긴 신발인 화에 구겨 넣어 착용했고, 돌궐인6은 바지를 화 밖으로 꺼내 착용했다. 돌궐인4의 바지의 화에 들어가는 부분에 주름이 많아 대구고나 궁고를 착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돌궐인7(그림 17), 9(그림 19), 10(그림 20), 11(그림 21)의 상의의 유형은 착의로 무릎선 아래까지는 내려가는 긴 길이에 목선형태가 젓혀진 것인 변령포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돌궐인8(그림18)은 상의 안쪽에 둥근 것의 단령포로 된 관두의의 저고리를 내의로서 착용했기에 목선형태가 젓혀진 것인 변령포를 외의로서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돌궐인8과 9는 옷깃이 젓혀진 부분이 가려져 보이지 않아 가선이 달린 곧은 옷깃이 좌·우 앞길을 교차시켜 여며진 직령교임포(直領交衽袍)로 볼 수도 있으나, 어깨부분을 확대해서



봤을 때 옷깃에 들어간 가선이라면 어깨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며, 약간 떠있기 때문에 이는 찢혀진 옷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돌궐인7, 8, 9의 여밈은 우임이며, 돌궐인10, 11은 좌임으로 확인된다. 돌궐인 7, 9, 10, 11의 허리에는 대가 둘러져있다. 게다가 돌궐인7, 10, 11의 세 인물 모두 옷깃이 찢혀지기 시작하는 위치가 대부분 나타나지 않고, 옷고름 없이 가슴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아 대와 함께 단추로 여밈음으로 추측된다. 돌궐인7, 9, 10의 소매통과 손목부분의 소매 주름을 보아 좁고 긴소매로 착수형 장수이고, 수구에는 길이가 긴 가선이 둘러져있다. 돌궐인9와 10은 수구뿐만 아니라 옷깃과 도련에도 가선이 둘러져있다. 돌궐인7, 9, 10, 11도 변령포 안에 단령으로 된 관두의의 저고리를 내의로서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돌궐인7의 단령 저고리는 목선에 가선이 있다. 돌궐인9는 하의로 바지를 목이 긴 신인 화에 구겨 넣어 착용하고 있는데 화에 바지가 들어가는 부분의 주름이 많으며, 돌궐인10은 바지를 화 밖으로 꺼내 착용한 것으로 보아 바지통이 좁지 않고 여유로운 대구고나 궁고를 착용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상 안가모 석관상 연회도에서 돌궐인들의 상의의 유형은 착의로 무릎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긴 길이에 목선형태가 직령의 옷깃이 서로 합쳐져 V-네크라인으로 된 직령합임포, 둥근 깃인 단령포, 찢혀진 깃인 변령포로 살펴볼 수 있고, 포 안쪽으로는 둥근 깃의 단령으로 된 관두의의 저고리를 내의로서 착용하였다. 상의의 유형 별 형태로는 앞길이 막혀있어 여밈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앞길이 열려있어 여밈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여밈 방향은 좌·우임 혼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밈 방법은 대와 함께 단추를 이용한 것으로 유추된다. 좁고 긴 소매 형태인 착수형 장수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선은 옷깃, 도련, 수구에 둘러지기도, 또는 두르지 않기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했다. 하의의 유형으로 바지(袴)가 나타나 있고, 바지 주름이나 그 착용법을 통해 바지의 세부 형태는 바지부리가 넓은 대구고나 바지부리를 오므린 궁고로 유추된다.

#### 4) 아프리카시압 궁전 벽화

서돌궐 지배 시기인 7C 중반에 완성된 소그드인의 대표 예술 유적인 아프리카시압 궁전 벽화 중 서벽 벽화 총 1점에서 돌궐인이라 판단되는 총 30명의 인물들을 통해 돌궐 복식을 볼 수 있다. 비록 실물은 부분적으로 채색이 떨어져고 윤곽선이 흐리나 아프리카시압 박물관의 복원도 및 모사도를 통해 돌궐 의복의 유형 및 형태 분석이 가능했다.

벽화 속 정면의 돌궐인과는 달리 후면이나 측면의 돌궐인은 의복 유형별 세부적 형태를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어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면의 돌궐인의 의복 유형은 세 가지 경우로, 후면이나 측면의 돌궐인의 의복 유형은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정면의 돌궐인의 의복 유형 중 첫 번째는 상의로 둥근 깃인 단령저고리에 하의로 천을 인체에 두르는 형태의 권의(卷衣)형 치마를 착용한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벽화 속 돌궐인은 3명이다. 이를 단령포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돌궐인1(그림 22)을 살펴보면, 목선부터 허리까지와 허리부터 밑단까지의 앞여밈 선이 끊어져 따로 위치하기 때문에 이는 포가 아니라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투피스 스타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돌궐인1이 착용하고 있는 상의의 유형은 착의로 목선형태가 둥근 깃의 단령저고리이며, 앞여밈 선이 그려져 있어 여며서 착용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좌임이며, 허리에 대는 있으나 목선까지 여며져 있으면서 목선 가까운 곳에 단추가 그려져 있어 대와 함께 단추로 여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통이 좁은 착수이며, 수구에만 길게 가선이 둘러져있다. 하의의 유형은 천을 허리춤에 둘러 입는 권의형 치마에 해당된다. 돌궐인1의 모습을 보면 치마 착장법에 대해 여러 추측이 가능한데, 허리부분에 검은색의 얇은 대가 확인되며, 둘러말아진 천의 색상이 치마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사각형의 천을 허리에 두른 뒤 얇은 대로 고정하고, 대를 중심으로 윗부분의 치마 천을 둘러말아서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정면의 돌궐인의 의복 유형 중 두 번째는 상의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둥근 깃인 단령포를 착용한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벽화 속 돌궐인은 3명이다. 모두 취하는 자세와 의복의 유



〈그림 22〉 돌궐인1의 실물복원도와 모사도, 7C,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소장  
(출처: AFROSIAB (p.18) Afrasiab Museum, 2014, Samarkand: Afrasiab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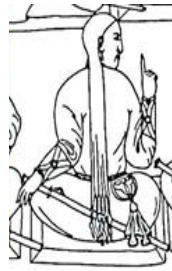
〈그림 23〉 돌궐인2, 7C,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소장  
(출처: AFROSIAB (p.18) Afrasiab Museum, 2014, Samarkand: Afrasiab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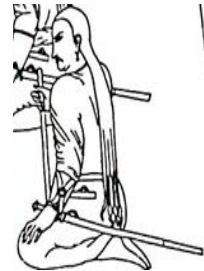
〈그림 24〉 돌궐인3의 실물복원도와 모사도, 7C,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소장  
(출처: AFROSIAB (p.18) Afrasiab Museum, 2014, Samarkand: Afrasiab Museum.)



〈그림 25〉 돌궐인4, 7C,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소장  
(출처: AFROSIAB (p.18) Afrasiab Museum, 2014, Samarkand: Afrasiab Museum.)



〈그림 26〉 돌궐인5, 7C,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소장  
(출처: AFROSIAB (p.18) Afrasiab Museum, 2014, Samarkand: Afrasiab Museum.)



〈그림 27〉 돌궐인6, 7C, 아프리카시압 박물관 소장  
(출처: AFROSIAB (p.18) Afrasiab Museum, 2014, Samarkand: Afrasiab Museum.)

형 및 세부 형태가 정확히 동일하기에 대표적으로 돌궐인2(그림 23)를 통해 본 상의의 유형은 목선부터 밑단까지 앞여밈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무릎아래 선을 지나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길이이기 때문에 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몸에 밀착되는 것으로 보아 착의로 목선형태가 둥근 것의 단령포로 살펴볼 수 있다. 앞여밈 선이 그려져 있어 여머서 착용하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좌임이며, 허리에 대는 있으나 목선까지 여머져 있으면서 웃고름은 없어 대와 함께 단추로 목선까지 여머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매통이 좁은 소매로 착수이며, 수구에만 길게 가선이 둘러져있다. 해당하는 벽화 속 돌궐인 3명의 하의의 유형은 모두 돌궐인2와 같이 포를 착용하고 앉아있어 확인이 어렵다.

정면의 돌궐인의 의복 유형 중 세 번째는 상의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쪼터진 것인 변령포를 착용한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벽화 속 돌궐인은 9명이다. 모두 취하는 자세는 상이하

나 의복의 유형 및 그 세부 형태는 정확히 동일하기에 대표적으로 돌궐인3(그림 24)을 통해 본 상의의 유형은 몸에 밀착되는 착의로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길이에 목선형태가 쪼터진 것인 변령포로 살펴볼 수 있다. 앞여밈 선이 그려져 있어 여머서 착용하는 형태이고, 좌임이며, 허리에 대는 있으나 쪼터진 것의 시작점이 가슴부터 시작하면서 그 시작 위치에 웃고름 대신 단추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 대와 함께 단추로 여머짐을 알 수 있다. 소매통이 좁은 소매로 착수이며, 수구에만 길게 가선이 둘러져있다. 하의의 유형은 모두 길이가 긴 포를 착용하고 있어 확인이 어려우나 넓지 않은 포의 실루엣과 돌궐인3의 발목 부근에 그려진 선을 통해 바지통이 좁은 착고 역시 착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어서 후면이나 측면의 돌궐인의 의복 유형 중 첫 번째는 돌궐인4(그림 25)와 같이 상의로 저고리에 하의로 권의형 치마를 착용한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벽화 속 돌궐인은 3명이다.

허리에는 얇은 대가 따로 있고, 이를 중심으로 윗부분을 돌려말아서 착용한 것으로 보아 정면의 돌궐인의 의복 유형 중 첫 번째 의복과 유사하게 착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면이기 때문에 저고리의 유형은 알 수 없으나 몸에 밀착되는 착의로 소매통이 좁은 소매인 착수를 보이며, 수구에만 길게 가선이 둘러져있다.

후면이나 측면의 돌궐인의 의복 유형 중 두 번째는 상의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포를 착용한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는 벽화 속 돌궐인은 12명이다. 대부분 돌궐인5(그림 26)와 같이 후면에 앉아있음에도 상의가 무릎을 덮고 내려가기 때문에 무릎아래 선을 지나는 길이임을 알 수 있고, 돌궐인6(그림 27)과 같은 측면의 모습을 통해서 상의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임을 볼 수 있어 상의의 유형은 몸에 밀착되는 착의로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길이의 포로 살펴볼 수 있다. 소매통이 좁은 착수이며, 수구에만 길게 가선이 둘러져있다.

이상 아프라시압 궁전벽화 돌궐인의 상의 유형은 착의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에 목선 형태가 둥근 깃인 단령포, 젓혀진 깃인 번령포로 살펴볼 수 있고, 권의형의 치마와 함께 착용되는 단령저고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상의의 유형별 세부 형태를 살펴보면 단령저고리, 단령포, 번령포 모두 여밈 입고, 여밈 방향은 좌임으로만 나타났으며, 여밈 방법은 대와 함께 단추를 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좁은 소매 형태인 착수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선은 수구에만 길게 둘러져있다. 하의의 유형으로 바지(袴)와 치마(裳, 囊)가 나타나고 있고, 바지의 형태는 넓지 않은 포의 실루엣과 발목 부근에 그려진 선을 통해 바지통이 좁은 착고로 유추된다. 치마의 형태는 천을 허리춤에 둘러 입는 권의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 IV. 돌궐 의복 유형별 형태 고찰

문헌자료와 유물에 나타난 돌궐 의복 유형 분석을 토대로 북방 유목기마민족인 돌궐의 의복 유형은 호복계의 특징인 상유하고(上襦下袴)계(김미진, 조우현, 2006)를 기본으로 하며, 이에

상의와 하의로 대분(大分)할 수 있고, 상의는 저고리와 포로, 하의는 바지와 치마로 세분(細分)할 수 있다.

##### 1. 상의(上衣)

돌궐의 상의 형태를 그 세부사항인 목선 형태, 여밈 유형, 소매 형태, 가선 장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목선 형태는 곧은 깃인 직령(直領), 둥근 깃인 단령(團領), 젓혀진 깃인 번령(翻領)으로 모양에 따라 분류하였고, 앞길이가 막혀있어 여밈 형태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와 앞길이가 열려있어 여밈 형태가 존재하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여밈 형태는 여밈 방향 및 방법에 따라 나뉘는데, 여밈 방향은 왼쪽으로 여미어 입는 좌임(左衽)과 오른쪽으로 여미어 입는 우임(右衽)이 있고, 여밈 방법은 옷고름, 단추, 허리띠 등이 있다.

소매 형태는 소매통의 크기에 따라 넓고 큰 대수(大袖)와 좁아 팔에 밀착되는 착수(窄袖)로 구분하였다. 또한 소매 배래에 따라 진동과 수구의 크기 비슷하여 원통형으로 일직선의 배래선인 통수(筒袖)와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사선배래, 그리고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넓어지는 역사선배래(채금석, 2014)로 나뉘어 살펴보았다.

가선이란 깃, 쇄, 도련, 옷의 소매 끝인 수구 등에 다른 색의 천으로 두른 선(襖)(채금석, 2006)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선이 둘러진 위치에 따라 형태를 분류하였다.

##### 1) 저고리

돌궐 저고리의 길이는 대체로 치마 안으로 집어 넣어 외의로서 착용하거나, 포 안쪽으로 입는 내의로서 착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허리선까지 올라오는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져 있음을 통해 그 길이는 대체로 허리선보다는 아래인 둔부선을 지나는 길이로 짐작할 수 있다. 목선 형태는 둥근 깃의 단령만이 나타났으나, 앞길이가 막혀있어 여밈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관두의 단령저고리가 내의로서 착용되는 형태와 앞길이가 열려있어 여밈 형태가 존재하는 단령저고리가

외의로서 착용되는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앞길에 막힌 관두의 단령저고리는 포 안에 착용하는 내의이기 때문에 소매 형태의 직접적 확인은 불가하다. 그러나 외의로 착용한 포의 소매 형태를 살펴보면, 소매통의 크기가 좁아 팔에 밀착되는 착수에 소매의 여유분과 주름이 잡힌 모양을 보아 진동에서 수구 쪽으로 좁아지는 형태의 사선배래 소매이다. 그러므로 외의의 소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의의 소매는 그와 유사한 형태에 크기가 더 좁을 것이다. 이러한 팔에 밀착되는 착수 형태는 바람과 추위를 막는데 좋았을 것이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가축을 돌보는 생활양식에 편리하도록 활동성과 기능성을 갖추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가선 장식은 내의로 착용되었기 때문에 목선 가선의 유무만 확인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옷깃에 가선이 둘러지지 않았으나 옷깃에 가선이 둘러진 형태도 존재는 했다.

앞길에 열린 단령저고리는 왼쪽으로 여며주는

좌임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며, 대와 함께 단추를 이용하여 여미고 있다. 소매통이 좁은 착수이며,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사선배래형의 소매이다.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착용했기 때문에 도련 가선의 유무는 확인이 불가하지만, 수구에만 길게 가선이 둘러져있는데, 그 가선장식이 매우 길게 되어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이상 돌궐 저고리의 유형별 형태는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두루마기: 포袍

돌궐의 포는 바지와 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릎 선을 지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길이다. 돌궐은 다양한 형태의 포를 보이고 있는데, 목선의 형태를 중심으로 직령의 옷깃이 서로 합쳐져 V-넥크라인으로 된 직령합입포, 둥근 깃인 단령포, 젓혀진 깃인 번령포로 분류할 수 있다. 돌궐 상의의 유형 중 번령포가 가

<표 2> 돌궐의 저고리 유형별 형태

분류	하위분류	실물 자료	도식화	목선 형태	여미 유형			소매 형태		가선 장식
					앞길	방향	방법	크기	배래	
저고리	단령			단령	전폐			착수	사선	옷깃
				단령	전개	좌임	단추대	착수	사선	수구

<표 3> 돌궐의 포 유형별 형태

분류	하위분류	실물 자료	도식화	목선 형태	여미 유형			소매 형태		가선 장식
					앞길	방향	방법	크기	배래	
포	직령합입			직령	전폐			착수	통수 or 사선	옷깃 도련 수구
	단령			단령	전개	좌임	단추대	착수	사선	옷깃 도련 수구
	번령			번령	전개	좌임우임	단추대	착수	사선	옷깃 도련 수구

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변령포가 돌궐 의복에 있어 대표적인 형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직령합입포는 옷깃이 서로 합쳐져 앞길은 막혀 있기 때문에 여밈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매 형태는 좁고 긴소매로 착수형 장수이며, 진동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구가 매우 좁은 것으로 보아 사선배래형의 소매이거나 혹은 통수로 짐작된다. 가선 장식은 옷깃, 도련, 수구(袖口)에 둘러져있기도, 또는 둘러져있지 않기도 하면서 스타일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령포는 앞길이 열려 모두 좌임으로 대와 함께 단추로 여미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매형태는 길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소매통은 좁은 착수에 진동 깊이와 수구 넓이의 비례로 볼 때, 진동에서 수구로 좁아지는 사선배래 형태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가선은 옷깃, 도련, 수구에 둘러져있기도, 또는 둘러져있지 않기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했으나 공통적으로 수구에는 가선을 길게 둘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령포를 살펴보기에 앞서 변령이란 것 부분이 라펠처럼 접혀 넘겨진 형상의 옷깃을 말하는데, 이는 열려 있는 앞길 좌우 직각의 목선을 바깥쪽으로 접어 넘긴 구조로 변령에 윗깃만 더하면 서양의 테일러드 칼라와 같은 형태(채금석, 2017)이다. 돌궐의 변령과 서양의 테일러드 칼라를 통해 동·서 간의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문화교류의 역사와 교류를 통한 문화발전과정이 복식 속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돌궐을 비롯하여 북방계 유목민족의 의복에서는 단령과 변령이 대표적인 것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김소현(2003)의 연구에서는 둥근 것의 단령포를 꺾어 젖혀놓은 상태가 변령포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기후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파임이 많은 것보다는 목을 덮어주는 것이 바람과 추위를 막는데 좋았을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 목둘레를 꺾어 젖혀놓을 수 있어 실용적인 의복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변령포는 앞길 열려 대부분이 좌임을 하였으나 우임도 혼용하여 대와 함께 단추로 여미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매형태는 길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착수에 사선배래 형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가선은 옷깃, 도련에 둘러져있기도, 또는

둘러져있지 않기도 하면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했으나 수구에는 모두 가선을 길게 둘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돌궐 포의 유형별 형태는 다음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2. 하의(下衣)

### 1) 바지

대부분 포나 치마에 가려져 바지의 형태를 볼 수 없으나 문헌자료와 몇몇의 유물을 통해 돌궐의 바지 유형을 착고(窄袴), 궁고(窮袴), 대구고(大口袴)로 나눌 수 있으며, 유형별 형태는 바지통 너비, 바지부리 형태, 바지 밑위를 막아주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천인 당(檔)의 부착 유무, 가선 장식 유무의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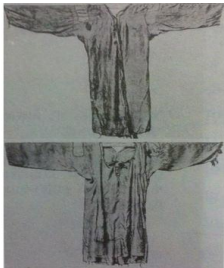
바지통이 좁은 착고는 북방 유목민족의 특성으로, 바지통이 좁아 다리에 밀착되는 형태가 바람과 추위를 막는데 좋았을 것이고, 또한 말을 타고 달리면서 가축을 돌보는 생활양식에 편리하도록 활동성을 갖추었기에 두루 착용되었을 것이다. 돌궐 역시 바지부리 형태는 펼쳐져 있으나 바지부리가 매우 좁아 다리에 밀착되는 착고를 착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부착 유무는 포에 가려져 있어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하나, 유목민족인 돌궐이 기마 활동을 위해서는 아무리 바지통이 좁아 다리에 밀착되는 형태로 활동성을 부여한 착고라고 하더라도 바지 밑위에 당은 필수적으로 달아야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선 장식은 없다.

궁고의 ‘궁(窮)’은 ‘없어질’, ‘끝날’, ‘막힘’ 등의 한자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없어지는 바지’, ‘막힌 바지’ 등으로 풀이가 되며, 이에 궁고는 바지 밑에 당을 달아 밑을 막고, 바지부리를 주름 잡아 오므린 구조로 바지부리를 줄인 것으로 짐작되며, 당시 활을 쏘고 말을 타는 활동성을 요하는 유목생활을 위한 바지이다. 돌궐의 바지 유형으로 궁고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은 유물 속 돌궐인이 착용한 바지 모습과 더불어 돌궐은 흉노의 후예라는 강한 인종학적 주장과 『수서(隋書)』의 「북적전(北狄傳)」과 『주서(周書)』의 「돌궐전(突厥傳)」에서 ‘돌궐은 대체적으로 흉노

(匈奴)의 습속과 같았다.’라는 고서기록을 통해 흉노의 의복 형태도 돌궐에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돌궐의 직령합입포와 B.C.1세기 흉노의 것으로 알려진 노인올라 출토 견포(그림 28)의 형태가 유사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돌궐은 흉노의 의복 문화를 이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흉노는 호족(胡族)이라 불리었고, 호복(胡服)은 흉노의 복식이라 한 것에서 시작하여 그 의미가 ‘북방계 유목민들의 옷’으로 확대(김소현, 2003)된 것이다. 게다가 호복에 있어서 ‘소의 턱밑살’을 뜻하는 ‘호(胡)’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주름이 형성되는 흉노의 의복의 형태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흉노의 궁고의 형태로 입증된다. 즉, 착수, 착고 형태로만 호복의 형태를 한정 짓기보다는 오히려 밑으로 늘어지고 자연스럽게 주름이 형성되는 흉노의 복식 형태에서도 그 형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북방계 유목민족 돌궐의 궁고의 형태도 B.C. 1세기 흉노

귀족의 노인올라 출토 견 바지(그림 29)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인올라 견 바지의 기본구조(그림 30)는 각기 두 개의 직사각형 천을 서로 엇갈리도록 사선으로 겹쳐놓고, 삼각 당을 달아 바지 부리에 주름을 잡아 오므린 것(채금석, 2017)으로 돌궐의 궁고 역시 이와 같은 기본 구조와 형태를 가졌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즉, 돌궐의 궁고는 여유로운 바지통 크기에 바지부리는 주름을 잡아 오므렸을 것이고, 바지 밑위에 당을 부착하여 막아주었을 것이다. 가선장식 유무는 확인이 불가하다.

대구고(大口袴)는 한자 그대로 바지 입구가 넓다는 의미로 바지통의 크기가 넓은 바지에 바지부리는 오므리지 않은 형태라 할 수 있다. 바지부리가 넓은 대구고는 형태상 궁고의 오므려진 바지부리를 그대로 펼치면 되므로 돌궐의 대구고도 궁고와 구조가 거의 동일하되 바지부리는 오므리지 않고 펼쳐져 터져 있는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결국 흉노와 돌궐의 인종적 연결성이 복식 간의 유사성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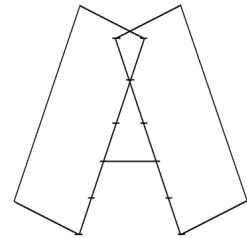
〈그림 28〉 흉노 견포, B.C.1C, 노인올라

(출처: 터키사 (p.64) 이희수, 2005,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그림 29〉 흉노 견제바지, B.C.1C, 노인올라

(출처: “흉노(匈奴)의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김용문, 2013, 복식, 63(3), p.198.)





〈그림 30〉 흉노 노인올라 견제 바지의 기본 구조

〈표 4〉 돌궐의 바지 유형별 형태

분류	하위 분류	실물 자료	도식화	바지통 너비	바지부리 형태	당 부착 유무	가선 장식
바지	착고			좁은 형 (다리 밀착)	펼침 (소)	유	무
	궁고			좁은 형 넓은 형	오므림	유	확인 불가
	대구고			넓은 형	펼침 (대)	유	무

〈표 5〉 돌궐의 치마 유형별 형태

분류	하위분류	실물 자료	도식화	길이	장식
치마	권의형			발목까지 오는 긴 길이	허리 장식/ 안감 장식

해 가려져있던 복식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오히려 복식의 유사성도 흉노와 돌궐의 인류학적 연결성 연구에 보탬이 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돌궐의 바지 유형별 형태는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치마

돌궐의 치마로는 천을 허리춤에 둘러 입는 권의형(卷衣形) 치마가 있다.

치마 유형의 형태는 치마 길이와 장식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치마 길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돌궐의 치마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이다. 이어서 장식 여부 등의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돌궐의 권의형 치마에서는 눈에 띄는 장식적인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권의형 치마를 허리에 두른 뒤 끈과 같은 얇은 대(帶)로 고정하고, 치마에서 대를 중심으로 윗부분의 치마 천을 둘러말아서 착용하는 행위 자체가 장식적인 효과를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 돌궐의 치마 유형별 형태는 다음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오늘날까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시베리아에서 발칸 반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퍼져 무수한 군소 국가들을 구성하는 투르크족의 뿌리이자, 고대 실크로드를 누비며 동·서 교류의 주역을 담당하던 북방 기마유목민족인 돌궐족(突厥族, 투르크)의 의복 형태를 고찰하여, 아시아 복식 연구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흉노의 후예라는 설이 유력한 돌궐은 알타이산맥 서남부 지역을 발상지로 하여 A.D. 6세기부터 8세기까지 한랭건조기후를 특징으로 하는 초원대를 누비며 동쪽으로는 중국 동베이(東北: 만주)까지, 서쪽으로는 투르키스탄(중앙아시아)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방계 유목기마민족이다. 즉, 돌궐족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실크로드 주변 지역 민족들을 통합하여 지배하였고, 돌궐(突厥)제국이라는 세계 대제국과 함께 투르크족이라는 민족 연합체를 성립하였으며, 지배 종족 및 실크로드를 통해 연결된 다양한 민족들과 서로의 문화를 소통 및 공유, 교류하며 발전하였다.

둘째, 문헌·유물자료에서 도출한 돌궐 의복의 유형은 먼저, 북방민족의 기본형인 호복(胡服)계의 범주인 상유하고(上襦下袴)제에 속하며, 저고리, 포, 바지, 치마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의와 하의로 구분하였고, 상의는 저고리와 포로, 하의는 바지, 치마로 세분하였다. 상의의 유형은 목선 형태에 따라 저고리는 단령저고리로, 포는 직령함입포, 단령포, 번령포로 살펴볼 수 있다. 하의의 유형에서 바지의 유형은 바지통 너비와 바지부리 형태에 따라 착고와 대구고, 궁고로 분류되며, 치마의 유형은 권의형 치마로 나타났다.

셋째, 돌궐 의복 중 상의의 직령함입포는 흉노의 견포와 그 형태가 유사하여 흉노와 돌궐 간의 인종학적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돌궐의 바지 유형 중 궁고와 대구고의 형태는 흉노의 노인올라 출토 견 바지에서 추측할 수 있다. 돌궐 의복 형태는 대부분 착수착고(窄袖窄袴)의 몸에 밀착되는 착의(窄衣)로 나타나는데, 이는 한랭건조기후 및 유목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복식 문화를 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목민족인 돌궐이 기마 활동하기 위해서 필수

적으로 바지의 밑위에 당을 부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문헌과 유물자료를 통해 돌궐의 의복을 종합적으로 살펴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세부적 형태와 구조, 그리고 디테일을 시각화함으로써 돌궐의 다양한 환경요인과 의복 형태 간의 긴밀한 상관관계를 살펴봄, 투르크계 문화의 뿌리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적 요소로는 지금까지 돌궐 복식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자료 역시 불충분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크로드를 통한 문명요소의 이동은 각 민족의 복식문화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고, 한민족도 실크로드를 활발하게 이용하며 동·서 문화의 소통 속에서 다양한 종족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의 복식문화를 형성해왔다. 이에 앞으로 고대 한국과 돌궐, 그리고 다른 다양한 중앙아시아 지배 종족의 의복 형태 비교를 통해 문화적 친연성 탐색과 고대 한국 복식의 원류와 국제성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참고문헌

- 강운봉. (2010). *왕오천축국전 : 헤초의 대여행기*. 서울: 두레아이들.
- 고마즈 히사오. (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이평래 역). 서울: 소나무.
- 국립제주박물관. (2008).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 서울: 서경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편). (2010). *소그드의 역사와 문화 :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 국제한국학회. (2000). *실크로드와 한국문화*. 고양: 소나무.
- 권현주. (2012). 투르크계국의 복식문화. *중앙아시아연구*, 17(1), 153-172.
- 김미진, 조우현. (2006). 고구려 복식을 활용한 캐릭터 문화상품 개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추계 학술대회*, 2006(12), 145-148.
- 김소현. (2003). *호복*. 서울: 민속원.
- 김소희, 채금석. (2015). 고구려와 선비족 의복 형태 비교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2), 63-78.
- 김용문. (2010). 아프리카시압 벽화에 나타난 복식연구. *한국복식학회지*, 60(7), 117-130.
- 김용문. (2013). 흉노(匈奴)의 복식문화에 관한 연구. *복식*, 63(3), 1-16.
- 김용문. (2015). 당대(唐代) 호인용(胡人俑)의 복식 연구. *한복문화*, 18(1), 65-79.
- 김용문, G. 에릭젠. (2008). 몽골석인상의 복식연구. *한복문화*, 11(3), 193-205.
- 김종래. (2002). *유목민이야기*. 서울: 꿈엔들.
- 김효정. (2001). 돌궐족의 기원신화에 나타난 이리(Kurt) 모티브 小考. *한국중동학회논총*, 22(2), 241-258.
- 데 바이에르. (1994). *몽골석인상의 연구* (박원길 역). 서울: 해안.
- 동북아역사재단. (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8, 周書·隋書 外國傳 譯註*.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9, 北史 外國傳 譯註*.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 스기야마 마사아키. (2013). *유목민의 눈으로 본 세계사* (이경덕 역). 서울: 가디언. (원저 1952 출판)
- 이광호. (1998). *이슬람과 한국의 민간신앙*.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 이희수. (2005). *터키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희철. (2002). *터키*. 서울: 리수.
- 정수일. (2001). *고대문명교류사*. 파주: 사계절.
- 정수일. (2013). *실크로드 사전*. 파주: 창비.
- 정완서. (2012). 디아스포라 미술의 어제와 오늘 : 서도호와 소그드인. *Visual*, 9, 84-98.
- 정재훈. (2009). 돌궐(突厥) 초기사(初期史)의 재구성(再構成). *중앙아시아연구*, 14, 1-31.
- 채금석. (2006). *우리저고리 2000년*.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 채금석. (2012). *세계화를 위한 전통한복과 한스타일*. 파주: 지구문화사.
- 채금석. (2014). 백제 복식 유형별 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8(1), 1-18.
- 채금석. (2017). *한국복식문화-고대*. 서울: 경춘사.
- 퍼트리샤 리프 애너월트. (2009). *세계 복식 문화사* (한국복식학회 역). 고양 : 위즈덤하우스.
- Afrasiab Museum. (2014). *AFROSLAB*. Samarkand: Afrasiab Museum.